쌀알 크고 밥맛 좋은 쌀이 여무는 황금들녘

농도 전남쌀의 비밀

광주일보·농식품부 공동 기획

〈상〉전남 '명품 쌀' 뜬다

소비자에게 쌀은 더 이상 단순한 끼니 해결의 수단이 아니다. 변화하는 식문화 패러다임에 맞춰 생산단계부터 소비자의 취향을 고려한 고품질의 품종 선정이 필요하다. 사진은 전남도농업박물관 전경. 〈광주일보 자료사진〉

가격 보다 가치 우선 소비 트렌드…생산단계부터 취향 고려

지역 토질·기후 특성 맞는 주력품종 선정 브랜드 가치 높여

풍광수토·수호천사 건강미·갯벌에여문쌀 밥맛 좋은 신동진

장성 조명1호·강진 일미 등 지자체 고품질 쌀 지원·판로개척

소비 트렌드 변화로 조금 더 비싸더라도 밥맛과 품질에 만족하면 구매를 망설이지 않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17 식품소비행태조사'에 따르면, 쌀을 구매할 때 맛을 중시하는 응답자는 33.2%로, 가격을 중시하는 응답 16.3%의 2배에 달했다. 가격보다 가치를 우선하는 소비 패턴의 등장으로 대형마트 쌀 판매대에서는 생산지역뿐만 아니라 품종별로 구분해 판매하는 등 시장이 변화하고 있다.

이 같은 소비 트렌드는 유통단계뿐만 아니라 생산단계에서부터 변화를 이끌고 있다. 농촌진흥청은 밥맛 좋은 품종의 재배를 늘리기 위해 지역 토질과 기후의 특성에 맞는 고품질 벼를 주력품종으로 추천, 지역 쌀의 브랜드가치를 높이는데 주력하고 있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전남에서도 수확량이 많은 품종보다는 고품질 품종 중심으로 생산을 재편, 경쟁력을 확보하고자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0대 브랜드 쌀 생산= 1990년대 농촌진흥청이 개발한 신동진은 강한 불에 조리하는 볶음밥이나 뜨거운 소스와 함께 먹는 덮밥 등에 가장 적합한 쌀로 평가받은 전남 대표 품종이다. 쌀알이 일반 쌀에 비해 1.3배 크고 밥맛이 좋아 소비자들에게 인기가 높다. 농가에서도 수익성이 좋은 품종이다.

전남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신동진 재배가 증가하고 있다. 2017년 기준으로 신동진은 전국 쌀 생산 면적의 11.7%를 차지하며 쌀 품종 가운데 2위를 차지했다.

전남에서도 신동진을 단일품종으로 한 지역 브랜드 쌀이 출시되고 있다. 2018년 전남 10대 브랜드쌀에 선정된 고흥군 '수호천사건강미', 신안군 '갯벌에여문쌀'이 신동진 단일품종으로, 밥맛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전남도 광역 쌀 브랜드인 '풍광수토' 역시 신동진 단일품종이다.

전남농업기술원에서는 지역 쌀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 지난 2016년 밥쌀용 품종인 새청무(전남6호)와 흑미인 다향흑미를 고품질 품종으로 발표했다.

기존에 재배되고 있던 청무는 뛰어난 쌀의 특성을 갖고 있지만 병해충과 쓰러짐의 단점이 있었다. 이를 보완하고자 재배안정성이 좋은 새누리 품종과 인공 교배해 육성한 품종이 새청무다. 청무와 밥맛은 유사하지만 생산성은 높고 벼가 익는 시기도 청무에 비해 1주일 정도 빠르다는 장점이 있다. 또 줄무늬잎마름병·벼흰잎마름병 등 병충해와 쓰러짐에 강해 재배하기 수월한 특성이 있다.

새청무와 함께 개발된 다향흑미는 줄무늬잎마름병 등 병충해에 강해 전남의 흑미 재배지역에 적합하고 생산량이 높은 흑향미 품종이다. 다향흑미는 흰쌀이나 다른 쌀과 함께 섞어 먹는 밥이나 가공식품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밖에 신안군에서 재배되고 있는 프리미엄 단일품종인 '골든퀸2호', '진상2호'도 소비자 반응이 좋아 지난해 재배면적을 확대했다.

◇지자체 고품질 품종 적극 지원= 지자체에서 고품질 품종 쌀의 다양한 판로 개척과 체계적인 지원으로 농가 소득을 높이고 있다.

장성군은 조명1호 품종으로 '명품 브랜드 쌀 육성 프로젝트'를 진행, 지역 쌀 경쟁력을 높였다. 조명1호는 전남농업기술원이 전남 쌀의 경쟁력을 높이고자 2008년 교배해 2015년에 지역 적응성을 마친 신품종이다. 밥맛이 좋은 고시히카리와 수발아(이삭 싹 나기)·쓰러짐에 강한 온누리 품종을 교배해 식감이 찰지고 맛이 구수하며 추석 전 햅쌀용으로 조기 출하된다. 장성군은 2015년 호주를 시작으로 미국·러시아 등지에 꾸준히 수출 판로를 확대하고 있다. 조명1호를 재배하는 농업인에게는 포대 당 2000원의 생산장려금을 지급, 재배 면적을 넓히고 있다.

강진군도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 증가 추세에 맞춰 고품질 쌀 재배면적을 확대하고 있다. 강진지역의 토양과 기후에 적합하고 쌀의 특성이 우수해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은 품종인 일미, 신동진, 전남6호 등 세가지 품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참여 농가에 한해 출하 장려금을 포대당 2000원씩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에서 생산되는 고품질 우수 쌀 중 일미 품종은 전국 GS25에 김밥용 밥쌀 전용으로, 신동진은 강진군 브랜드 쌀인 청자골로 출하하는 등 소비처를 확보하고 있다.

전남농업기술원 관계자는 "연이은 풍작과 재배기술 향상으로 양곡 재고량이 지속적으로 늘면서 오히려 농민들은 쌀 가격하락과 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전남지역 쌀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고품질 품종으로 소비자에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정욱 기자 jwpark@kwangju.co.kr

"전남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세요"

농협 전남본부 캠페인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10일 전남도청 일대에서 출근길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캠페인은 최근 집중호우 및 연이은 자연재해 등으로 침체된 농촌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을 확산하기 위해 진행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종화 전남도 농림축산식품국장, 박태선 전남농협 본부장, 유해근 NH농협은행 전남영업본부장, 나용석 삼향농협 조합장을 비롯, 관내 팜스테이마을 대표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팜스테이마을 홍보책자와 여행용 쌀, 부채 등을 나눠주며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또 최근 계란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계농가를 돕기 위해 구운 계란 1000여개를 배부하는 등 계란 소비촉진 행사도 병행했다.

박태선 본부장은 "농촌에서 여름휴가 보내기 운동이 장마와 수해로 피해를 입은 농업인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길 기대한다"며 "5000만 국민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에서 몸과 마음을 힐링하고 우리농산물 애용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부탁했다.

한편, 팜스테이마을은 농사와 전통문화, 마을축제 등에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체험·숙박·문화가 결합된 복합관광마을로 생태·농사체험은 물론 마을의 자원과 시설을 저렴하게 이용하며 휴촌(농촌에서의 휴가)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KT&G 전남본부와 영농체험활동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김일수)는 최근 KT&G 전남본부(본부장 이승우) 직원과 봉사단 30여명이 영농체험 활동을 가졌다고 10일 밝혔다.

이날 KT&G 전남본부는 '또 하나의 마을' 결연을 맺은 광주농협(조합장 한진섭) 관내 무등산 평촌마을을 방문해 포도나무 봉지 씌우기 작업 등 영농체험과 환경정화 등 봉사활동을 병행했다.

이승우 본부장은 "마음의 고향인 평촌마을에서 부족한 일손도 돕고 마을 어르신께 인사도 드리는 뜻 깊은 날이었다"며 "또 하나의 마을만들기 도·농교류 활동에 다른 기업체도 많이 동참했으며 한다"고 말했다.

/박기웅 기자 pboxer@kwangju.co.kr

농식품부 "과태료·가산금 신용카드로 납부 하세요"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날 이후로 부과된 과태료나 가산금은 신용카드로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고 10일 밝혔다.

지금까지 과태료를 내려면 우편 등으로 납부통지서를 받은 뒤 은행 창구에서 현금으로 내거나 계좌이체를 해야 했다.

농식품부는 기획재정부·금융결제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치고, 전산시스템 연계 테스트를 거쳐 이날부터 부과·징수되는 과태료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게 했다.

농식품부는 "농산물 원산지 위반, 친환경 인증·가축이력제 위반 등으로 지난해 부과한 과태료는 18억원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과태료를 신용카드로 내려면 인터넷 지로 사이트(www.giro.or.kr)에 접속하면 된다. 납부 금액의 1%의 수수료가 생기고, 이 수수료는 납부자가 부담한다.

/연합뉴스